

1. 건물 입구 앞 - 오후

건물 입구 앞에 마주 서 있는 도영(32,남)과 소진(32,여) 그리고 찬우(31,남). 찬우, 허리 숙이며.

찬우 죄송합니다.

도영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찬우 저희가 확실히 했어야 했는데.

도영 정말 괜찮습니다. 담당자님도 모르셨는걸요.

찬우, 웃으며.

찬우 그래도 발주가 확정 났던 건 아니었으니까.

도영 네. 맞죠.

찬우 그래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확답 드릴게요.

도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우 얼른 들어가보세요.

도영이 목례하자, 소진도 따라 찬우에게 목례한다.

소진 고생하셨습니다.

도영 고생하셨습니다.

찬우 조심히 들어가세요.

허리 숙여 두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찬우.

건물 입구 앞 계단을 내려오는 도영과 소진.

찬우는 둘의 뒷모습을 잠시 쳐다보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2. 편의점 앞 - 오후

편의점 앞에 서서 휴대폰을 두들기는 소진.

편의점 문을 열고 나오는 도영, 손에 새 담배가 들려 있다.

도영 가자.

소진 어.

3. 흡연장 - 오후

도영과 소진, 흡연장에 들어선다.

흡연장에 마련된 의자에 앉는 두 사람.

소진, 담배에 불을 붙이며.

소진 우리 차 어딴지?

주머니에 손이 가 있는 도영은 담배를 문 채, 소진 너머로 턱을 치키며.

도영 저기로 들어가면 지하주차장이야.

소진 바로 여기야? 가깝네.

도영 야. 나 라이터 좀.

소진,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도영의 담배에 불을 붙인다.

도영 고마워.

도영, 의자에 눕듯이 앉아, 담배를 한 모금 빨더니 한숨을 내쉰다.

도영 하. 진짜.

소진 어처구니 없긴 해.

도영 지금까지 당연히 우리한테 살 거란 듯이 해놓고. 말이 없었다고, 없었던 일이 되
냐고.

소진 우린 물량도 다 남겨뒀어.

도영, 고개를 들어 소진을 쳐다보더니.

도영 하. 씨.

도영, 고개를 다시 뒤로 젖히며.

도영 사장한테 뭐라하지.

소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

도영 사장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게, 말을 정제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해.

소진 우리 잘못도 아니고. 그냥 말하면 되지.

도영 사장은 짜증나고, 나는 억울하고. 말하다 싸울 것 같아.

도영, 소진을 쳐다보며.

도영 곧 그만둘 거, 그냥 한바탕 해버릴까?

소진 나는 어찌라고.
도영 그냥 모르쇠 하면 되잖아.
소진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말할게.
도영 고마워.
소진 근데 연습은 좀 해.
도영 뭐를?
소진 감정을 다스리는.
도영 연습하는 겸, 사장한테 내가 말 한다니까.
소진 사장한테만 그러지 말고, 평소에 사람한테도.
도영 네~ 네~
소진 야.
도영 왜?
소진 회사 가서 뭐 더 할 거 있어?
도영 아니. 바로 퇴근 해야지.
소진 끝나고 술이나 마실래?
도영 어디서?
소진 이자카야 어때?
도영 저기 방배역 쪽?

소진, 고개를 끄덕인다.

도영 너가 사나?

도영을 빤히 마주보는 소진, 눈을 피하며.

소진 내가 살게.

도영 근데 갑자기 왜?

소진, 도영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린다.

도영 아야.

뒤로 젖힌 고개를 들어 소진을 쳐다보는 도영, 손으로 소진이 때린 곳을 어루만진다.

도영을 노려보는 소진, 이내 도영이 손으로 어루만진 곳에 손을 올리며.

소진 아파?

도영 아프겠냐고.

소진, 다시 한 번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린다.

도영, 자리에서 일어난다.

소진 마실 거야?

도영 할 얘기 있어서 마시자고 한 거 아니야?

소진 넌 없어?

도영, 담배를 재떨이에 버린다.

소진 억지로 하는 거면 하지 마.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붙잡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도영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쓰레기 같잖아.

소진, 자리에서 일어나 재떨이에 담배를 버리며.

소진 애매한 거 싫으니까, 확실하게 말해.

도영 좀 있다 얘기하자. 이자카야 가서.

4. 비상계단 - 오후

조금 어두운 비상계단.

발 소리가 들린다.

도영 이자카야 좋지. 어둑어둑하고.

소진 어둑어둑한 거 좋아하시나 봐요.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도영과 소진이 보인다.

소진 근데 우리 여기로 나왔었나?

도영 여기로 가도 나와. 우린 저~기로 나왔고.

5. 지하 주차장 입구 - 오후

건물과 지하주차장이 구분돼 있는 비상문으로 도영과 소진이 들어선다.

소진 구조가 희한하게 돼 있네.

도영 그냥 건물하고 지하주차장은 되는대로 다 이어버린 느낌이야.

6. 지하 주차장 - 오후

평범한 지하주차장.

차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도영과 소진.

소진, 두리번대며.

소진 이쪽인가?

도영 더 가야 돼.

도영, 시선으로 정면을 가리키며.

도영 저기 안쪽으로.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도영,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버튼을 누른다.

‘삐빅’

멀리서 들려오는 차 문이 열리는 소리.

소진 우리가 저렇게 멀리 댔었나.

도영, 오른손으로 우측을 가리키며.

도영 저기로 나가면 바로 병원 쪽이고, 우린 대학교 쪽에서 담배 사고, 피고 오느라 돌아온 거야.

소진 다 꿰고 있네.

도영 옛날에 여자친구가 여기 다녔어.

소진 아. 아팠다던 그 친구?

도영 맞아.

소진 병원이 여기였어?

도영 병원이랑, 학교도 여기였어. 만나러 오면 맨날 이쪽에 주차했었거든.

소진 아. 병원이랑 학교 둘 다 가야 하니까.

도영 차가 많이 없어서. 주차를 잘 못했거든, 운전면허 따 지 얼마 안 돼서.

소진 완전 옛날 얘기네.

도영 오 년 정도 됐나.

소진 오늘은 왜 여기다 댔어? 이제는 주차 잘 하잖아.

도영 병원하고 가깝잖아.

소진 아.

딩그러니 서 있는 승용차 하나.

소진이 보조석 쪽으로 가서 문고리를 잡아 당기지만 열리지 않는 문.

문고리를 한 번 더 잡아 당기는 소진.

소진 문 좀 열어줘.

도영 열었어, 아까.

도영, 운전석 문고리를 잡아 당긴다.

열리지 않는 차 문.

문고리에 달린 락버튼을 누르는 도영, 아무 반응 없는 차.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 버튼을 누르는 도영.

도영 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삐빅’ 소리와 함께 비상등 불빛이 깜빡인다.

뒤돌아 보는 도영.

도영 앞에 있는 차와 같은 차종의 차가 네 칸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다.

도영 아. 야. 이거 아니야.

도영, 뒤돌아 같은 차종의 다른 차로 다가가려는 순간,

우두커니 서 있는 시은(29,여)과 눈이 마주친다.

서로를 빤히 쳐다보는 도영과 시은.

소진, 시은을 발견하고는.

소진 죄송합니다. 저기 저희 차량 헛갈려서.

소진, 옆에 차를 가리킨다.

시은, 옆에 차를 잠시 보더니 차로 다가간다.

도영을 무시하고 차 문고리의 락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차에 타는 시은.

시은이 탄 차에 시동이 걸린다.

도영과 소진, 다른 차 쪽으로 향한다.

시은이 탄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리자, 뒤돌아 시은이 탄 차를 쳐다보는 도영.

소진 도망간다.

도영, 소진을 쳐다본다.

소진 모르는 사람 둘이 자기 차 문고리 잡고 끄꿍대고 있으면 무섭겠지.

차에 타는 두 사람.

타이틀:

(검정 화면에 흰 글씨로)

도망간다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도영,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

소진 저분도 병원 오신 거려나.

도영 그러지 않을까?

소진 사실 세상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니야? 병원 올 때, 여기에 주차하면 편하다는 거.

소진, 창 밖을 두리번거리더니.

소진 그러기엔 여기에 차가 너무 없긴 하네. 아니면, 사실 별로 편하지도 않다거나.

도영 뭐, 보증이라도 서 줘?

소진 혹시 모른다는 거지.

휴대폰 거치대에 휴대폰을 올려 놓는 도영, 시동을 켜다.

도영 여기 병원 올 일 있으면 학교에 대. 주차비도 학교가 더 싸. 요새 대학병원에 사람 많잖아. 학교는 차도 적으니까.

도영이 핸들을 잡는다.

출발하는 차.

도영 요새는 병원 주차장은 맨날 꽉 차서 기다려야 되거든.

소진 올 일이 있으려나.

도영 나 퇴사하면, 너 혼자 와야 되잖아.

7. 사무실 - 저녁

불이 꺼져 있는 어두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도영과 소진.

도영, 불을 켜다.

도영 다들 퇴근하셨나?

소진 그러게. 지금 몇 시지?

도영 일곱 시.

소진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사장도 제 때 퇴근했네.

도영 다행인 건가.

도영, 소파에 퍼지듯 눕는다.

도영 여기 언제까지 다닐 거야?

소진 이력서는 계속 넣고 있어.

가방에서 짐을 꺼내 자신의 자리에 올려 두는 소진.

소진 왜? 쫓려?

도영 내가? 뭐가?

소진 나랑 다른 회사에서 다시 만날까 봐?

도영 그 정도는 어느정도 엄두하고 있지. 나 그 정도로 생각 없지 않아.

소진 어이구. 잘나셨어요. 나는 또 그때 술에 취해 툭 튀어나온 감정에, 욕구에 휩쓸려 버린 줄 알았지.

도영 욕구에 휩쓸려 친구랑 얼굴 붉힐 일을 만들 정도로 자제력이 부족하진 않아.

소진 그럼 뭐가 고민인데?

도영 고민? 딱히 없는데.

소진 네 얼굴에 '나 심란합니다.'라고 써 있어.

도영 그래?

소진 아까 내가 얘기 좀 하자고 할 때부터 얼굴에 생기를 잃어가고 있고.

소파에서 일어나, 자신의 자리로 향하는 도영.

도영 아닌 데. 그래 보여?

소진 당연하지. 사 년 동안 네 얼굴을 매일 봤는데.

도영 좀 있다 얘기하자. 술집 가서.

소진 내가 상처 받을까 봐 계속 말을 빙빙 돌리는 거면, 그냥 술김에 자버렸다고 솔직히 얘기해. 난 괜찮으니까.

도영 그런 거 아니라니까.

소진 욕구에 휘둘리는 남자를 한 두 명 본 것도 아니고.

도영 생각을 정리하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걸려서 그래.

소진 핑계나 변명?

도영 아니. 이런저런.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거라 해야하나.

소진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는 남자들 옆에 아홉은 다 핑계나 변명이었어.

도영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 아니란 건 너도 잘 알잖아.

소진 자기는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고 믿는 남자들도 수두룩 했지.

도영 왜 계속 도발하는 거야.

소진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잖아.

도영 숨기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거야.

소진 그냥 팍 팍 꺼내. 난 그게 더 좋아.

도영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너가 상처 받을까 봐 조심스러운 게 아니야. 내가 아플까봐 그래, 그렇게 내 속에서 뭔가 막무가내로 꺼내면.

소진 그러면 나를 위해 좀 아프더라도, 나한테 템포를 좀 맞춰주면 안 돼? 난 쉴 새 없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

도영 여자친구 때문에.

소진 여자친구 있어?

도영 아니. 전 여자친구.

소진 그 아픈 분?

도영 아까 그 차주가 개야.

소진 그 티볼리?

도영 어.

소진 아. 그래?

소진, 몸을 배배꼬더니.

소진 으. 맨날 말로만 듣다가 실물을 보니까, 뭔가 소름이 돋네. 감각이 꼬이는 느낌이야.

소진, 정리된 의자를 꺼내 앉더니.

소진 그래서 그런다고?

도영, 일어나 정수기로 다가간다.

종이컵을 꺼내 정수기에서 물을 따른다.

소진 뭐, 너한테 귀가 닳도록 들었으니까, 너가 개한테.

소진, 말을 멈추더니.

소진 시은씨였나?

도영 시은 맞아.

소진 너가 시은씨한테 얼마나 미안해 하는 지도 알겠고, 그래, 충분히 그런 죄책감을 갖고 살 수 있겠다 싶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오 년이나 지난 일 때문에 심란하다고? 그건 잘 모르겠네.

도영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단 거야.

소진 술 마시면 머리가 좀 돌아갈 거 같아?

도영 그럴리가.

소진 내일?

도영 나중에 얘기하는 거 어때?

소진 나중에 언제.

도영 생각 좀 정리되면 말해 줄게.

소진 얼마나 걸리는데?

도영 그건 나도 모르지.

소진 뭐 어찌자는 거야.

소진, 앉아 있는 의자를 옆으로 천천히 뱅글뱅글 돌린다.

도영 아니면, 오늘 술은 마시러 가던가.

대답 없는 소진.

도영 싫으면 말던가.

도영, 소파에 앉는다.

도영 미안해, 내가.

소진, 돌리던 의자 멈추더니.

소진 이거 어때. 내가 시은씨가 될게. 나하고, 그러니까 시은씨하고 대화해보는 거야.

도영 너가 시은인 척 연기를 하겠다고?

소진 연기가 아니라, 역할극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 롤 플레잉.

도영 이상해.

소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도영, 갑자기 웃더니.

도영 재미는 있겠지. 근데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웃음 참기 가능해?

소진 난 할 수 있어. 너만 몰입하면 돼.

도영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소진 너가 너무 답답해.

도영 이러면 내가 덜 답답해져?

소진 너만 솔직하게 임하면 덜 답답해질 것 같아. 해주면 생각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줄게.

도영 그래. 내 문제가 먼저였으니까.

소진, 옆자리의 의자를 꺼내며.

소진 이리 와 앉아 봐.

도영, 소진을 마주보고 앉는다.

도영의 두 손을 잡는 소진.

도영도 맞붙잡는다.

소진 시은씨 성이 뭐지?

도영 박.

소진 시은씨가 평소에 너를 뭐라고 불렀어?

도영 오빠.

소진 오케이. 일단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들은 시은씨의 정보를 조합해서 잘 대화해

볼게. 나한테 시은씨에 대해 얼마나 얘기했는지 기억나?

도영 대충은?

소진 말투랑, 성격, 이런 건 디테일하게 따지지 말고, 실제로 할 법한 말인지에 집중해야 돼?

도영 알겠어.

소진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시은씨가 하지 않을 말 같으면, 너가 시은씨는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정정해 줘야 돼.

도영 알겠어.

소진 오케이. 속으로 천천히 십 오 초 세고 시작한다. 내가 먼저 말 걸게.

일어나는 소진.

사무실 안을 천천히 서성인다.

도영 생각보다 훨씬 본격적이네.

소진, 한참을 서성이더니.

소진 오빠. 왜 헤어지자 했어?

도영 시은인 그런 식으로 말 안 해. 그런 거 안 물어봐.

소진 아. 진짜. 내가 필요한 거니까 그냥 대답해.

도영 알겠어. 알겠어.

도영, 자리에서 일어서 서성이며.

도영 왜 헤어졌냐고? 아니, 왜 헤어지자 했냐고? 너랑?

소진 응.

도영 이유는 너무 많아. 근데 결국은 앞으로를 함께 하기 약속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 거겠지.

소진 내가 아파서?

도영 그것도 이유 중 하나가 아니라곤 못 하겠지.

소진 타임. 소진씨 어디가 아프다고 했지?

도영 골수이형성증후군.

소진 백혈병 같은 거라 했나?

도영 혈액암인데, 증상이 백혈병이랑 비슷해.

소진 완치는 어렵고, 한 달에 한 번 수혈해야 한다고 그랬지?

도영 맞아.

소진 뭐가 그렇게 막막했는데? 내가 오래 못 살 수도 있는 게? 내가 죽고 혼자 남는 게 무서운 건가?

도영 아냐. 그래도 함께 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컸어.

소진 그러면 뭐가 문제였는데? 이성적으로 흥미가 떨어진 거야?

도영 그런 건 진작에 떨어졌지. 사 년이나 사귀었는데.

소진 몇 년을 사귀든 안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

도영 그런 사람들은 둘 중에서 하나야. 말도 안 되게 운이 좋거나, 바보거나.

소진 그럼 현실적인 조건이 문제야? 집에 돈도 없고, 학력도 별 볼 일 없고.

도영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너도 알잖아.

소진 내가 성질이 너무 드럽나?

도영 뭐가?

소진 헤어지자고 계속 굼었잖아.

도영 그때 헤어졌으면 조금 덜 미안했으려나 싶긴 해.

소진 결국 도망쳤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잖아.

도영 진짜 그거 말곤 이유가 더 없나?

소진 뭐라 이유를 갖다 붙이든, 다 그걸로 귀결시킬 수 있지.

도영 이유야, 갖다 붙이면 다 그렇지.

소진 나는 정이 쌓이기 전에 빨리 도망치고 싶었던 거지. 오빠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나도 계속해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 버려질 나를 상상하고, 혼자 이 별을 준비하면서. 너는 나쁜 사람이 되고, 나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길 바라면서.

소진, 도영을 뒤에서 안는다.

소진 조금 더 솔직해져 봐. 방식이 다를 뿐, 다들 도망칠 때 죄책감을 최대한 덜 갖기 위해서, 도망치는 모습이 덜 추해 보이길 바라잖아. 나도, 너도. 아니, 오빠도.

도영, 소진을 팔을 떨치며.

도영 낮간지러워서 못 하겠어. 오글거려.

소진 뭐가? 오빠라고 하는 게?

도영 그것도 그렇고. 그냥 이러는 게.

소진 부끄러워도, 내가 부끄러워 해야지. 왜 너가 난리야.

도영 너는 개를 모르는데, 나는 알잖아.

도영, 자신의 짐을 챙기며.

도영 나중에 얘기하자. 아직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소진 알겠어.

소진, 자신의 짐을 챙긴다.

소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마. 난 괜찮으니까.

도영, 소진을 쳐다본다.

소진 정 힘들다 싶으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해도 되고.

도영 없었던 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소진 그냥 친구로 지내지 않을까?

도영 친구?

도영, 백팩을 멘다.

도영 집 안 가?

소진 술 안 마시는 김에 물량이나 확인하고 가려고. 내일 사장님한테 말할 때, 같이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도영 좀 도와줄까?

소진 어차피 나가실 분이, 어차피 얼마 안 걸려.

도영 진짜 괜찮아?

소진 금방 갈 거야. 먼저 가.

도영 알겠어. 먼저 갈게.

출입문을 여는 도영, 소진에게.

도영 언제까지 말해줄까?

소진 편한대로. 생각 정리되면 말해. 어차피 보챌다고, 빨리 정리할 것도 아니잖아.

도영 배려해줘서 고마워.

소진, 도영을 보고는 웃는다.

도영도 마주 웃는다.

사무실을 나서는 도영.

소진, 겹옷과 짐을 챙기더니, 소파에 털썩 앉는다.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장이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온다.

사장 소진이는 집에 안 가?

소진, 자리에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며.

소진 다녀왔습니다.

사장 도영이는 집에 가던데.

소진 저도 이제 가야죠.

사장 도영이가 소영이가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을 거라던데. 뭐 일 있어?

소진 아. 내일 말씀드릴게요.

사장 급한 거면 지금 말해.

소진 급한 건 아니라.

사장 그래? 그럼 나중에 말해줘.

소진 네.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장 아. 소진아. 어디 안 들리고, 집에 바로 들어가는 거지?

소진 네. 그래야죠.

사장 가는 길에 오늘 들어올 물량 잘 들어왔는지 확인 좀 해주라.

8. 창고 - 저녁

비닐봉지에 포장된 소모용 의료용품을 하나 들어 쳐다보는 소진.

창고 안은 소모용 의료용품들이 가득 쌓여 있다.

허리춤까지 쌓인 더미로 손에 들고 있는 포장된 소모용 의료용품을 던지는 소진.

불을 끄고 창고서 나온다.

아무도 없는 거리, 닫힌 문을 확인하곤 창고를 떠난다.

소진의 뒷모습이 보인다.

끝.